자비심과 인욕 갖춘 자가 법화설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⑮ 법화경 설법지침

"약왕이여,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가 열반에 든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자는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방에 들어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 앉아야 비로소 그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여래의 방이란 온갖 중생을 감싸는 큰 자비심이며,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게 인욕하는 마음이며, 여래의 자리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니, 이 속에 안주하고 난 다음에 게으름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약왕이여, 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조화를 부려 만든 사람을 보내 그를 위해 청중을 모으며, 또 조화를 부려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를 보내 그가 설하는 법을 듣게 하리니, 이 모든 조화를 부려 만든 사람의 법을 듣고 믿어 받들어 따르고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설법하는 자가 사람이 없는 한가한 데 있을 때는 내 널리 천인과 용과 귀신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을 보내 그가 설하는 법을 듣게 할 것이니라. 내 다른 나라 있으면서도 때때로 법 설하는 자로 하여금 내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약 이 경의 글자와 글귀를 잊었을 적에는 내 또한 그를 위해 설해 주어 완전히 기억하게 하리다."

〈법사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은 〈법화경〉을 설하는 자세와 정신에 대하여 설해 놓은 내용이다. 경전에서 경전을 설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점이 특이하다. 먼저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야'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는 말이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물론 뒤에 설명하듯이 상징적인 말이지만 불법을 설하는 근본 태도를 밝힌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생을 감싸는 큰 자비심을 여래의 방이라 하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욕하는 것이 여래의 옷이라 하였다. 자비의 방에 들어와 인욕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 여래의 자리라 하였다. 이 방과 옷과 자리, 세 가지를 갖춰야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는 것은 자비와 인욕, 공(空)이 설법의 요건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몸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자비가 들어 있는 사람이라야 '법화설자(法華說者)'가 될 수 있고, 남에게 부드럽고 인욕할 수 있는 근기가 되어야 하며, 제법이 공한 이치를 알고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는 부처님 열반 후의 설법지침이다. 이 대목에서 '자실인의(慈室忍衣)' 혹은 '인의자실(忍衣慈室)'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아내기도 하였다. 이는 또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인품의 덕목이기도 하다.

이 〈법사품〉에서는 또 오종법사(五種法師)을 설한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고(誦), 해설(解說)하고, 서사(書寫)하는 다섯 가지 법화행자의 실천행을 밝히고 이로써 〈법화경〉을 유통할 것을 은근히 부촉하고 있다.

〈화엄경〉처럼 〈법화경〉도 설한 곳(處)과 법회 수(會)를 구분해 말하기도 하였다. 80권 58만7000여 자의 〈화엄경〉의 7처9회에 비해 7권 6만9000여 자인 〈법화경〉은 2처3회 설법이라 하였다. 2처란 영축산과 허공을 말한다. 3회란 영축산에서 허공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영축산, 허공, 영축산을 말한다. 3회로 나눌 때 '서품'부터 '10품 법사품'까지가 영산회이고 '11품 견보탑품'부터 '22품 촉루품'까지가 허공회이다. 그리고 후영산회는 '23품 약왕보살본사품'부터 '28품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이다. 이렇게 〈법화경〉의 구조를 각 품을 구분해 보아온 관례가 있었다.

당나라 때 승상(僧祥)이 지은 〈법화전기(法華傳記)〉가 있다. 이 책에는 〈법화경〉의 유래와 전역(傳譯), 영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용수(龍樹)와 세친(世親), 견의(堅意) 등에 의하여 이미 강술되고, '제바달다품'을 제외한 〈법화경〉의 27품이 용수 이전 1세기 경에서 150년 사이에 성립되고 '제바달다품'은 3세기 전반에 추가되어 28품으로 이루어졌다 하였다. 구마라습이 406년에 번역한 〈법화경〉이 용수가 지은 〈대지도론〉에 인용되고 견의가 지은 〈입대승론〉에도 인용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로서 살기 위한 실천과 마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⑮ 대승불교의 계율

부파불교 시대의 칠중계(七衆戒)는 재가자보다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독신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라한(阿羅漢)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가자, 특히 비구와 비구니의 삶이 적합하다고 여긴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아비달마(阿毘達磨) 교학의 연찬과 금계(禁戒)의 준수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파 교단은 여러 차례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본래 목표를 망각한 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수행자를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또는 소승(小乘)으로 비판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승(大乘)으로 표방한 이들은 불타(佛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살(菩薩),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대승불교 이전의 보살은 석가모니불의 전생을 가리켰으며, 불전문학에서 본생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서원을 세웠던 존재로 묘사되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보리심(菩提心)에 근거한 이타(利他)의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자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대승 경전에는 여러 보살의 삶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승불교의 계율인 대승계(大乘戒)는 대승의 보살에게 적합한 계율이므로 보살계(菩薩戒)로 불린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후나야마 도루(船山 徹)는 보살계를 '대승의 이상상(理想像)인 보살로서 살기 위한 실천 항목과 마음 자세를 체계화한 대승의 독자적인 계율'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보살계는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승 경전에 나오는 보살처럼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에 필요한 행위 규범이다. 따라서 대승의 보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대승 경전에 설해진 보살계를 찬찬히 뜯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승경전은 한꺼번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대승불교도에 의해 제작되었다. 대승경전은 성립 순서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며, 초기 대승경전과 중기 대승경전은 교리나 실천면에서 후기 대승경전보다 중요하다. 초기 대승경전은 최초기의 대승경전에서 용수(龍樹)의 시대까지 제작된 경전이며, 중기 대승경전은 용수 이후 무착(無著)과 세친(世親)의 시대까지 제작된 경전이다. 초기 대승경전으로는 〈반야경(般若經)〉 계통의 경전, 〈화엄경〉, 〈법화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기 대승경전으로는 〈열반경〉을 비롯한 여래장 계통의 경전과 〈해심밀경〉을 비롯한 유식(唯識) 계통의 경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살계도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다소 소박한 형태이었지만, 중기 대승경전에서는 정교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특히 중기 이후에는 유식 계통의 경론에 설해진 삼취정계(三聚淨戒)가 보살계로 정착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어져서 5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 〈유가사지론〉 등이 한역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전인 〈범망경(梵網經)〉이 5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는데, 이 경전의 하권에 나오는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가 범망계(梵網戒)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보살계는 범망계로 인식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⑮ 고대 인도의 교통로

교통로 발달, 장자들 보시 촉진

석가모니 시대에도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 국제적인 무역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지역의 간선도로는 수시로 지워지고 새로 생겨나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수한 길 끝에는 항구가 있거나 도시의 관문 또는 사원이나 순례지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 당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장거리 루트를 고려해보자. 장거리 교통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북쪽 인더스 강과 동쪽 갠지스 강을 통해 육지에서 해상으로 빠져나간다. 서쪽에서는 인더스 강을 따라 내려가서 현재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었을 항구 바바리콘(Barbaricon)에서 배를 타고 아라비안 해로 나간 후, 근해안의 항로를 따라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해양길이 있었다. 동쪽 갠지스 강을 타게 되면, 동쪽 벵골만의 땀라립띠(Tāmraliptī) 항구에서 장거리 선박으로 갈아탄 후 아마라바띠(Amarāvatī)와 퐁디체리를 거쳐 내려간다. 그 후, 케이프 꼬모린(Cape comorin)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홍해로 들어가던 해양길이 있었다. 이 두 해양 루트는 불교 이전부터 잘 발달된 무역루트였다. 특히 페르시아만의 해상로는 인더스 문명기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무역선이 이동하던 해상로인데 지금의 두바이와 소말리아 등지에서 인더스 인장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선은 바레인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로 들어가 우르(Ur)나 니뿌르(Nippur) 등과 같은 도시에 인더스만의 특산물, 상아, 티크, 홍옥수,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애호했던 라피스라줄리 등을 떨궈주고 돌아왔을 것이다.

육로는 크게 북방루트와 남방루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방루트는 탁실라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테헤란을 거쳐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해당하는 셀레우키아(Celeucia)를 거친 후 다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르는 육로를 고려해볼 수 있다.

탁실라의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르칸드나 카쉬카르를 거쳐 잘 알려진 실크로드를 사막길을 따라 장안까지 걸어가야 했을 것이다. 남방루트는 탁실라에서 마투라까지 열린 남북연결로를 이용한다. 여기서 마투라는 남서쪽의 웃자인(Ujjayinī)과 남동쪽의 꼬삼비(Kośāmbī)와 연결되면서 인도 본토 무역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게 된다. 웃자인에서 더 서쪽으로 내달리면 항구도시 바리가자(Barigaza) 즉 지금의 구자라트 주에 있는 바루치(Baruch)에 도착한다. 여기서 배를 타면 페르시아만이나 홍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바바리콘과 바루치는 서방의 이국을 향해 출발하는 중요한 항구도시였다. 반대로 웃자인에서 동쪽길을 따라 가면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 꼬삼비가 있는데, 코삼비는 다시 동쪽의 도시 파탈리뿌뜨라와 연결된다.

이 동서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웃자인-꼬삼비-파탈리뿌뜨라의 교통로는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도시의 발전과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장자들의 보시가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일으켰던 신흥계급의 주역들이 불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운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에 그려진 바와 같이, 꼬삼비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원들이 모여 있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의 유명한 장자들의 이름을 딴 꾹꾸따(Kukkuta) 사원이나 고시따(ghosita)사원, 빠바리까(Pāvārika) 사원 등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통로 위에 놓여진 쁘라야그(Prayag, 현대의 알라하바드)와 파탈리뿌뜨라도 중요한 불교중심지였다. 파탈리뿌뜨라는 다시 동쪽으로 뻗어나간 길을 따라 벵골만의 항구도시 땀라립띠와 만나고 바다로 이어진다. 그러나 쁘라야그나 파탈리뿌뜨라는 석가모니 당시 허름한 촌락(grāma)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촌락은 아마도 마우리야 왕조에 이르러 크게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길 위에 놓인 도시들은 쉽사리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장소를 연결하는 길은 이름 없이 훨씬 더 오랜 흔적을 남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